

북한 ‘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제언*

함승수(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선임연구원,

영남신학대학교/특임교수)

hampaul@ssu.ac.kr

한글 초록

본 연구는 북한 ‘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시작되었다. 지난 77년의 분단 시기 동안 남북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요소에서 이질화를 경험하고 있기에 진정한 통일의 완성은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북한 ‘교육’ 연구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교육은 문화와 역사를 전수할 뿐 아니라 사회의 존속과 변혁 그리고 공동체성을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북한 ‘교육’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자들의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교육’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연구’는 북한 지역 복음화를 위한 ‘북한 선교 연구’의 하위 연구로 치부되어 온 경향이 짙다. 현장에서는 교회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통일 후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갈 교육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연구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시작하였다. 연구를 위해 일차적으로 ‘북한 연구’의 동향과 쟁점을 세대별 구분에

*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지원금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 (2021S1A5C2A02089882)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근 북한에 대한 연구가 연구 주제와 방법론에 있어 확장되고 있으며,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차원의 정책과 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최근의 연구들은 일상의 차원에서 북한의 모습을 조망하는 미시적 연구로 분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후 '북한 교육 연구'의 주요한 흐름을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 교육 연구를 태동기(70년대)-과도기(80년대)-도약기(90년대)-확장기(2000년대)-발전기(2010년 이후)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 연구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북한 교육 연구 역시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 이루어져 정치·사회적 연구물의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 연구들은 그 주제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연구 및 연구방법론의 주요한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교육 연구의 현안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1980년대 비로소 시작된 기독교교육영역에서의 북한 연구는 대다수의 연구의 방향이 '교회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공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적 통일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개발 및 북한 사회를 복음화 하는데 필요한 북한 교육 자체에 대한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연구도 그 주제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연구와 북한 교육 연구의 동향과 그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 영역에서 북한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탈 이데올로기적 연구 토대 구축', '1차 연구 자료(Raw Data) 확보', '연구 주제 및 연구방법론의 활성화', '연구 역량 강화' 등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사회통합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연구의 마중물이 되어 분단과 통일이라는 험난한 역사의 과제와 마주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구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 주제어 》

기독교 북한 교육 연구, 기독교 통일연구, 기독교 북한 연구, 북한교육 연구방법론

I. 들어가는 말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지 77년이 흘러갔다. 길고 긴 역사의 굴곡 속에서 우리는 통일이라는 이상과 분단이라는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간극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는 통일이 성큼 다가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보란 듯이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며 남북 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되었다. 이러한 굴곡의 역사는 우리에게 통일은 선물로 주어질 수 없다는 것과 통일의 이상과 분단의 현실 사이를 매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준비 없는 통일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아닌 재앙이 될 수 있다.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울 만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경험한 독일의 통일 사례는 제도적 통일만큼이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과 역량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킨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곧 통일의 완성이 아니었던 것처럼 남북한의 통일도 휴전선 철거 이상의 준비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지난 77년의 분단 시기 동안 남북한은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요소에서 이질화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통일의 완성은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든든하게 마련하는데 달려있다(양금희, 2016). 여기에 한국교회의 '북한 교육 연구'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교육은 개인적으로 선천적인 소질을 개발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자아실현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문화와 역사를 전수할 뿐 아니라 사회의 존속과 변혁 그리고 공동체성을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이다(함승수 외, 2019). 이렇듯 통일 후 사회 통합과 발전의 측면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북한 연구'는 북한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북한 선교 연구'의 하위 연구로 치부되어 온 경향이 있다. 기독교교육영역에서의 연구도 통일을 대비하여 교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통일 후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갈 교육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연구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북한 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시작하였다. 북한 교육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자들의 사명임에 틀림없다. 연구를 위해 일차적으로 '북한 연구'와 '북한 교육 연구'를 구별하여 시계열적 흐름에 따른 주요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최근 북한에 대한 연구가 연구 주제와 방법론에 있어 확장되고 있으며 북한 연구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차원의 정책과 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일상의 차원에서 북한의 모습을 조망하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연구로 분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연구 및 연구 방법론의 주요한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교육 연구의 현안과 쟁점을 분석하고,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 영역에서 북한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을 '탈 이데올로기적 연구 토대 구축', '1차 연구 자료(Raw Data) 확보', '연구 주제 및 연구방법론의 활성화', '연구 역량 강화' 등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II. 북한 연구방법의 발전과 의의

고유환(2019)은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동향을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4세대로 구분하며 각 세대별 연구의 동인과 추이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북한 교육에 대한 연구도 일반적 북한 연구에 추이와 연계되어 있는 바, 북한 연구에 대한 세대별 쟁점과 특징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북한 교육 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1. 1세대 북한 연구 (해방 이후 ~ 60년대)

: 전체주의적 북한 연구의 태동

1세대 북한 연구는 남북 분단 시기인 50-60년대 시작되었다. 북한에 대한 연구는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데, 한국전쟁을 치루며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 북한에 대한 연구 역시 북한을 타도하고 체제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산물로서 연구의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1세대 북한 연구는 김일성과 공산주의 운동사 등 북한 정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북한에 대한 연구 자료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 아니라, 확보된 연구 자료조차 연구자들의 접근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 북한 연구는 북한 체제를 경험 했던 인사들과 정부 자료에 접근이 허용된 소수의 관변 학자들이 연구를 이끌게 되었다. 자연스레 이들은 국가의 정책적 필요를 채우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는데, 북한을 이해 할 수 있는 학술적·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 보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식을 기반으로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시기 연구는 북한 사회를 크게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전체주의적 방법'에 따라 김일성 중심으로 북한 사회를 이해하고,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북한 체제를 분석하는 기술 중심의 연구물(descriptive research)들이 주를 이루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2. 2세대 북한 연구 (70년대 ~ 80년대)

: 사회과학연구방법론의 도입

70-80년대에 들어서며 북한 연구에 국제정치학 및 비교정치학 등 사회과학이론들이 연구에 활용되기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미중 데탕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촉발되고 있었다. 이는 북한 연구에도 영향을 주어 ‘행태주의(Behavioralism)’와 ‘구조기능이론(Structural Functionalism)’ 등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이 북한 연구에 시범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북한 사회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행태주의에 기초한 연구는 체계적인 관찰을 통하여 얻은 객관적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북한연구에 있어서 북한을 주적으로 단정하여 이를 토대로 진행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구조기능주의적 해석은 사회의 각 부분은 전체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안에서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는다라는 상호 환원주의적 해석의 틀을 제공함으로써세계에 유례가 없는 철저한 수령 중심의 북한 사회를 분석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2세대 북한 연구는 여전히 전체주의적 해석들을 바탕으로 북한식 공산주의와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통제와 감시를 통해 북한주민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박탈한 김일성 체제의 획일적 지배체제를 비판하는 연구 경향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3. 3세대 북한 연구 (80년대 ~ 90년대)

: 내재적 접근 연구 등장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탈-이데올로기적 북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당시 국제 사회는 냉전 체제의 해체와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를 통해 사회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있었으며, 이는 체제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존 북한 연구의 굴레를 해체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이데올로기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북한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충실한 다양한 연구를 촉발시켰다. 주목할 것은 북한 연구에 있어 ‘내재적 접근(Immanent approach)’이 등장하였다는 점이다(강정인, 1998). 송두율(1995, 210-211)은 북한 사회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선 서구와 남한 사회의 분석의 틀로 북한 사회를 해석하는 '외재적 접근'은 지양되어야 하고, 북한의 관점과 그들의 시각에서 북한을 이해하려는 '내재적 접근법'에 기반한 북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요컨대 내재적 접근 '내재적 이해에 기초한 내재적 비판'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유환, 2019). 북한 연구에 있어 내재적 접근법의 등장은 1987년 '북한 바로알기' 운동과 결합되면서 북한체제의 내적 작동 논리를 파악하는데 새로운 계기점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북한을 바라보는 파격적인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이해하지는 내용이 친북좌파 논쟁으로 비화된 점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경도된 북한 연구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가 되기도 하였다.

4. 4세대 북한 연구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 북한 연구의 확장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북한 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의 확장을 이룬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선 1-3세대의 연구는 북한 사회를 위로부터 분석하는 거시적 관점의 연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접근과 내재적 접근을 통해 북한 연구의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연구가 상부구조 중심의 북한 체제 운영 원리에 집중됨으로서 북한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역동성을 파악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동독의 붕괴와 소련의 해체과정을 목격하며 상부구조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기존의 연구가 사회주의 체제의 속살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반성이 일어났고, 하부구조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일상이 오히려 상부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극과 슬픔의 현장은 이데올로기 연구를 뛰어넘는 북한 실상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발시켰으며, 남북한 협력과 지원 그리고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미시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구가 바로 ‘미시적 차원에서 북한 사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의 연구는 북한 이탈주민의 증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데, 90년대 중후반 늘어난 북한이탈주민들은 제한적이지만 북한연구에 있어 질적 연구의 가능성을 가능케 하였다. 기존의 문헌을 통해서만 파악했던 평면적인 북한 사회가 아니라 그들의 삶과 생활을 통해 북한 구석구석의 형편과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북한 사회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5. 소결 : 북한 연구 동향에 대한 평가와 과제

북한 연구에 대한 시기별 주요 주제와 연구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3세대 연구물들은 1차 자료들을 기반으로 북한 사회를 정태적(Static)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북한 사회의 외적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속성을 외형적으로 설명하는데 유효했으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동태적(dynamics) 같은 요소들을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90년대 중반이후 미시적 차원에서의 북한 사회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시장화, 주민 유동성의 증가와 같은 북한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터뷰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잡지와 작품, 멀티미디어와 SNS 등이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1〉 북한연구의 주요 주제와 연구방법론 (고유한 2015, 2019)

세대 및 시기	주요 주제	주요 연구방법	
1세대 (해방이후-60년대)	김일성 체제 연구 공산주의 운동사 등	거시적 연구방법론 정태적 기술 중심	
2세대 (70-80년대 말)	북한 체제 연구 북한 사회(이념) 비판적 연구	구조기능이론 등 정치사회학적 연구방법	
3세대 (80-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붕괴론 북한 체제의 작동원리	내재적 접근법 북한 바로알기운동	
4세대	~ 2000년대	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구조	연구방법론의 확장 미시적 접근
	2000년대 ~	북한 일상의 삶에 대한 연구	도시사, 일상사 연구 GIS, 데이터마이닝, SNS

III. 북한 교육 연구의 주요 동향과 쟁점

북한 교육에 대한 연구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본 장에서는 북한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물을 중심으로 시기별 북한 교육 연구의 동향과 주요 쟁점 사안을 개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의 연구목록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연구목록에서 ‘통일 교육’, ‘북한교육’등의 검색어로 선행 연구물들을 취합 후, 이를 연구자의 분석에 따라 태동기 - 과도기 - 도약기 - 확장기로 특정하였다. 연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북한 및 통일 관련 방대한 연구물 중 ‘북한 교육관련’ 검색어로 한정하였음을 밝힌다.

1. 북한 교육 연구의 태동기 (70-80년대 초반)

1950년대 시작한 ‘북한 연구’에 비해 뒤늦게 시작 된 ‘북한 교육 연구’는

197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다. 초기 북한 교육 연구는 ‘국토통일원’과 ‘북한 연구소’와 같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연구자들은 북한의 교육을 이념과 체제,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신효숙, 2006). 이 시기 북한 교육 연구는 북한의 교육정책 특징과 제도의 변화 그리고 교과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일차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강례묵, 1972; 김창순, 1977; 박용헌, 1980; 박용헌, 1982; 북한연구소, 1983) 특히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담아내는 북한 교육의 총론적인 모습의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최광석, 1970; 노계현 외, 1974; 도흥렬, 1979; 노계현, 1979; 윤동현, 1982). 이렇듯 초기의 북한 교육 연구는 순수한 교육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북한 사회를 형성하는 정치적, 사상적 측면에서 교육의 역할과 효능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남북한 적대관계의 분위기와 결을 같이 하며 북한 교육을 비판함으로써 북한교육 연구가 일반적인 북한 체제에 대한 하위 연구(sub-study)로 치부되어 온 경향성을 선명히 드러낸다. 이 시기 주요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북한 교육연구 주요 학자 및 연구물 (70년-80년대 초반)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1970년	최광석	"북한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교육"
1972년	강례묵 (북한연구소)	"북한연구:교육제도"
1973년		"북한의 2세 교육"
		"북한의 언어교육정책"
1974년	노계현	"교육:공산주의 인간형성이란 무엇인가"
1975년	최광석	"북괴의 교육목표 및 방침분석"
	노계현 외	"북한군의 정치사상 교육목표와 실태"
1976년	박용헌	"북한 교육제도와 소련의 영향"
1977년	김창순 (북한연구소)	"북한교육론"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1977년	박용헌	"북한의 조기교육과 정치사회화"
1979년	도흥렬	"북한의 정치사회화와 사상교육"
	노계현	"북한의 사상교육 실태"
1980년	박용헌	"북한의 교육이론에 대한 비교"
1982년		"북한연구: 교육이념과 사상교양, 조기교육의 제도화와 그 지의"
1983년	윤동현	"북한의 교육 ; 귀신 등쳐먹을 구조적 세뇌술"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2. 북한교육 연구의 과도기 (80년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 교육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의 물꼬가 트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남북은 당국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84년에 LA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4월-5월)과 서울 경기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9월) 및 남북 경제회담이 5차례 걸쳐 개최되었고, 분단 후 최초로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 공연단의 교환방문이 성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교류와 협력 차원에서의 북한 교육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북한 교육 연구의 주체가 기존의 '국토통일원'과 '북한연구소'에서 '한국교육개발원'로 변경됨으로서 북한의 교육체제, 교육제도, 교육행정, 남북한 교육연구 등 북한 교육 자체에 초점을 둔 폭넓은 연구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신효숙, 2006).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과도기 북한 교육 연구는 북한 교육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넘어 북한교육을 소개하는 개론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졌고(평화문제연구소, 1984; 박용헌, 1985; 김대식, 1986; 문용린, 1987; 홍순미, 1989), 남북한 교육 비교를 통한 세분화된 북한 교육 연구의 발판이 마련

되기도 하였다(김도선, 1984; 김형찬, 1984; 남궁달화, 1987; 류영남, 1986; 양성철, 1987; 유인종, 1989). 그러나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등 북한 교육 연구 발전의 과도기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 주요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다.

〈표 3〉 북한 교육연구 주요 학자 및 연구물 (80년대 중후반)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1984년	김도선	"남북한 초등교육 비교연구"
	김형찬	"북한의 중등교육 변천과정"
	평화문제 연구소	"북한 청소년 교육"
1985년	박용헌	"공산주의 연구방법론:교육학"
1986년	류영남	"남·북한의 표기법 비교와 그 나아갈 길"
	김대식	"북한의 입시제도"
1987년	양성철	"남북한 교육이념 비교분석"
	남궁달화	"한국, 중공, 북한의 국민정신교육 비교연구"
	문용린	"북한의 학교교육과정 분석"
1989년	유인종	"남북한 교육제도 비교"
	홍순미	"북한의 교육사상과 체계"

3. 북한교육 연구의 도약기 (90년대-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북한 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는데 이는 북한의 붕괴론에 따른 시의성(時宜性)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북한은 다양한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1994년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였고, 옆친데 딸친격으로 이 시기 대홍수와 가뭄, 최악의 식량난으로 불리우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 절대적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역사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근과 자연재해로

북한 사회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놓였고, 전 세계는 북한이 조만간 붕괴될 것을 전망하기 시작했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북한 붕괴론은 북한교육 연구에 있어서도 북한 붕괴라는 유사시를 대비한 긴급한 연구를 촉발시켰다. 더 이상 체제 경쟁은 무의미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기점으로 체제 경쟁적 측면에서의 연구 대신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의 이념과 제도, 교육과정 등에 대한 실제적 연구가 시작되었다(강상철, 1995; 김동주, 1990; 김의석, 1997; 민명천, 1997; 박경미, 1995; 송병순, 1994; 양옥승, 1996; 장수영, 1991; 정범모, 1996; 조주연, 1996). 또한 북한 연구에 있어 내재적 접근법과 북한바로알기 운동이 확산되며(고유환, 2019) 북한 교육에 대한 객관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북한 교육 자체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의 기초를 쌓는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됨으로서 북한 교육의 연구가 총론적 수준에서 벗어나 주제의 다양화와 세분화, 연구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강지한, 1996; 김성재, 1993; 손기웅, 1997; 전종태, 1995; 정영수, 199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한만길 1997, 1998, 1999). 이 시기 주요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다.

〈표 4〉 북한 교육연구 주요 학자 및 연구물 (90년대)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1990년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북한의 고등교육체제 연구"
	김동주	"남북분단 이후 교육의 역사적 고찰"
1991년	장수영	"남북한의 과학 및 공학교육"
1993년	김성재	"민족통일을 위한 북한교육 이해 "
1994년	정영수	"북한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자"
	한만길	"한국의 통일교육과 북한의 청소년"
	송병순	"남북한 통일교육의 현실과 과제"
1995년	전종태	"북한의 교사양성 제도"
	강상철	"남, 북한 교과서 내용의 비교 분석"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1995년	박경미	"남·북한 수학 교과서 비교·분석"
1996년	조주연	"남북한 교육과정 교과서 비교 분석의 준거 탐색"
	양옥승	"남북한 사회의 영유아 보육현황 비교"
	강지한	"북한의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내용 분석"
	정범모	"통일을 대비한 남 북한 영 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의 과제의 진단"
1997년	김의석	"남, 북한 고등교육 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
	민병천	"남과 북:학교 통일교육의 방향"
	한만길	"북한 주민의 통일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손기웅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치교육 기본방안"
	김의석	"통일한국에 대비한 남북한 대학교육의 변천과정 및 지원 체제"
1998년	한만길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연구"
1999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교육 적응 연구"

4. 북한교육 연구의 확장기 (2000년대 - 201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며 북한 교육에 대한 연구는 그 주제와 방법론에 있어 급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진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북한의 정치사상 교육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북한 교육의 역사적 흐름, 학습자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분석 등 북한 교육을 다방면으로 연구하기 시작했고(강경숙, 2001; 김현철, 2000; 전미영, 2000), 통일을 대비한 교과서 및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최지민, 2000; 진유범, 2000; 최석진 외, 2000; 이은자, 2000; 주동일, 2000; 진유범, 2000; 윤종진, 2000; 김미숙, 2001; 문무영 외, 2001; 허재영, 2002; 임재훈 외, 2002; 박찬석, 2003; 김양희, 2004). 특히 북한 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지양하고, 순수한 학문적 차원에서 북한 학교급별 교육의 주제와 내용, 난이도, 교육과정 편성원리 등을 연구하는 동시에, 북한과 남한의 교과서의 비교 연구(comparative method)가 활성화 되고 있다(우정호 외, 2002; 최현호, 2002; 김재완 2003).

주목할 것은 탈북민의 증가에 따라 북한 사회와 교육의 현실을 보다 직접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 설문조사 등을 통해 1차 문헌연구의 내용과 실제 북한 교육의 현실을 교차 검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탈북민의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향규, 2000; 김기석, 2001; 한만길 2001; 신효숙, 2003; 조정아, 2004; 임순희, 2005; 이향규, 2010). 이 시기 주요 연구물들은 다음과 같다

〈표 5〉 북한 교육연구 주요 학자 및 연구물 (2000대 초반)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2000년	최지민	"남 · 북한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연구"
	진유범	"북한 고등중학교 정치사상교양 교과목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최석진 외	"북한 고등중학교 「지리」 교과서 분석 연구"
	이은자	"북한의 국어교육 실태 연구"
	김현철	"북한교육제도, 어디까지 왔나"
	주동일	"북한의 한문 교육 방법"
	진유범	"북한 고등중학교 정치사상교양 교과목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윤종진	"북한 인민학교 「도덕교양」 의 교육과정론적 분석"
	이향규	"북한 사회주의 보통교육의 형성"
	전미영	"북한 사회교육 정책의 현황과 평가"
2001년	김미숙	"북한교과서의 민족국가 담론과 젠더"
	김기석	"북한 사회주의 사회형성과 교육"
	한만길	"북한에서는 어떻게 교육할까"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 :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통한 분석"
	문무영, 김태훈	"개편된 북한 국어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강경숙	"북한의 영재교육 제도 고찰"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2002년	우정호, 박문환	"남북한 중등학교 수학교육의 통합방안 모색"
	최현호	"북한 중등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도덕적 동질성 분석 연구"
	허재영	"북한 고등중학교 1학년 『국어』의 체제와 내용"
	임재훈 외	"북한 고등중학교 수학 교과서 구성 방식의 변화 고찰"
2003년	박찬석	"북한의 사상 관련 교과서 분석"
	신효숙	"소련군정기 북한의 교육"
	김재완	"남북한 중등지리 교과서의 비교 연구"
2004년	김양희	"북한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수렴 형상"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2005년	임순희	"북한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2010년	이향규	"북한 교육 60년: 형성과 발전, 전망"

5. 북한교육 연구의 성숙기 (2010년대 - 현재)

2010년 이후 북한 교육 연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북한 교육 현상 자체에 초점을 두고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 사회를 미시적으로 이해하고, 북한 교육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교육이 보이는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보편주의 교육의 추구'이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3년, 11년제 의무교육기간을 1년 연장하는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을 제시하고 단계별 시행을 거쳐 2017년 12년제 학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비 교육적 목적이 강력한 북한 교육의 기본 근간은 쉽게 변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최근 북한의 교육은 국가발전이라는 거시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육적 강화에 초점을 두고 변화하고 있다. 이는 무상교육체계를 구축한 김일성 시기의 '평등주의 교육정책'과 고난의 행군 이후 국가 재건을 이끌 인재 양

성에 초점을 맞춘 김정일의 '실리주의 교육정책'에 자신의 '보편주의 교육정책'을 더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업적 홍보를 위한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학제 개편을 중심으로 북한 교육 연구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 북한 교육 현상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2010년 이후 북한 교육연구에서 추출된 워드 클라우드 빈도를 분석한 박미정(2020)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의 경향성은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 최근 북한 교육 연구는 북한 당국의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조정아, 2014; 김진숙 외, 2016; 김민성 외, 2017; 이승희, 2018)를 비롯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김지수, 2013; 한만길 외, 2014; 김진숙, 2016; 김석향 외, 2017; 정재관 외, 2017; 김병연, 2020)와 '학습' 관련 연구(권성아, 2013; 김형준 외, 2014; 최진환, 2021; 도지인, 2021) 등 그 주제와 내용이 폭넓게 활성화되고 있다. 이 시기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표 6〉 북한 교육연구 주요 학자 및 연구물 (2010년대 이후)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2013년	김지수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
	권성아	"북한 역사교과서의 중국·일본 관련 서술의 변화"
2014년	조정아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정책 방향과 중등교육과정 개편"
	한만길, 이관형	"북한의 12년 학제 개편을 통한 김정은 정권의 교육정책 분석"
	김형준, 박정호	"남북한 중학교 교과서의 고려시대 대외항쟁사 서술체제와 내용분석"
2016년	김진숙	"김정은 체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남북한의 최근 개정 교육과정 총론 비교"
	김진숙 외	"북한의 2013년 개정 교육과정 탐색"
2017년	김민성 외	"북한의 2013년 개정 지리교육과정 탐색"
	김석향, 김경미	"로동신문에 나타난 북한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분석"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2017년	서보혁 외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의 당위성 고찰"
	정채관, 조정아	"김정은 체제 북한 중학교 교육과정 연구"
	주재우 외	"남북한 초등학교 쓰기교육 내용 비교"
2018년	이승희	"남·북한 체육교육과정 분석을 통해서 본 체육 통일교육 발전방안"
2019년	황서연, 김정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북한 영어교육 연구 동향 분석"
2020년	김병연	"김정은 시대 북한 사회주의도덕 교과서 분석"
	황서연, 김정렬	"북한 초급중학교 영어교과서의 2013 개정 전·후 어휘 비교"
2021년	오기성	"김정은 시대 북한의 통일 관련 교육 연구"
	김유연,유성상	"북한 고등교육 학계에서 인식한 '세계 교육발전 추세' 분석"
	최진환	"북한의 교육 제도에 따른 국어 교육 변화 양상"
	도지인	"북한의 교육관·사제관계의 변화와 특징"

6. 소결

북한교육에 대한 연구는 북한 연구에 비해 뒤 늦은 70년대 시작되었으나 80년대 연구의 과도기를 거쳐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붕괴론이 대두되며 북한 연구가 체제 경쟁에서 벗어나 통일과 통합의 관점에서 북한 교육 자체를 연구하는 전향적인 연구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북한이탈 주민의 증가와 맞물려 북한 교육 연구는 아래 [그림 1]에서 같이 그 내용과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교육 연구의 양적/질적 발전의 과제가 여전히 제기된다. 특히 초기 북한 교육 연구가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 이루어져 정치·사회적 연구물의 성격이 강한 것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제 북한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교육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 사회

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미시적 관점에서 북한 교육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 2010년 이후 교육연구 클라우드 분석 결과(박미정, 2020)

IV. 기독교 북한 교육 연구의 주요 동향과 쟁점

본 장에서는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도서관의 연구목록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연구목록에서 '기독교 통일연구', '기독교 통일교육', '기독교 북한교육 연구' 등의 검색어로 선행 연구물들을 조사하였고, 이를 다시 시계열적 구분에 따라 정렬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연구물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상기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은 총 108편으로서, 이중 학위논문은 57편으로 박사학위 12편, 석사학위 45편이며 학술지에 게재된 51편의 연구물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기독교', '통일', '북한 교육'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물들 중 기독교와 관계있는 연구물들을 폭넓게 살펴보았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수집된 연구물 중 단순 정보제공 차원에서의 저널 기사, 보고서 등과 기독교 이름을 사용하는 통일교와 같은 이단의

연구물들은 제외하였음도 밝힌다.

1. 기독교 북한 교육 연구의 태동기(1980년대 - 1990년대)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비로소 시작되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주와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이라는 7.4남북 공동선언의 '평화통일 3대 원칙'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북한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자유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심어주었다(조은식, 2007). 분단과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점진적 이해를 바탕으로 1980년 한국기독교장로회는 '통일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는 선언을 발표하였고, 1986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통합)는 신앙고백서에 민족 통일의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김흥수, 1995). 1986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 지도자와 북한의 교회 지도자가 만나 한국교회 통일 운동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접화시키는 동시에 1988년 '8.8선언'을 통해 이념적으로 경도된 기독교 통일 논의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해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배경 속에서 기초적인 통일 연구가 1980년대 비로소 시작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 기독교교육 학자들은 체계적인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겨를도 없이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그 시기 맞물린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대두된 '북한 붕괴론'에 따른 긴급한 연구물들을 내고 있다는 점이다(김성재, 1998; 박완신, 1999; 노경천, 1999). 이는 당시 긴급했던 한반도 상황을 기독교교육의 영역에서도 시의성 있게 담아내고자 한 지점에서 유의미하다 평가 할 만 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미 '내재적 접근법'과 '북한바로알기 운동' 등 북한 교육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이 활성화 된 점에 비해,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연구는 기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례로 1999년 당

시 8개 주요교단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기성),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기하성),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의 기독교 교육관련 정책과 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 붕괴라는 전 세계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교단 공과 내용에서 통일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교회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연구의 척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함승수, 2018). 이 시기 주요 연구물들은 아래와 같다.

〈표 7〉 기독교통일교육 주요 연구물 (태동기: 80년대-90년대)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1988년	김성재	"평화와 민족통일을 이루는 기독교 교육"
1989년	오인탁	"통일교육의 필요성"
1995년	윤응진	"기독교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이론정립의 방향 모색"
1997년	최재연	"북한의 아동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독교교육적 비판"
1998년	김성재	"통일 이후, 한국교회 교육의 전망과 과제"
	박완신	"통일 이후 북한지역 교회교육을 위한 준비와 방향"
1999년	노경천	"통일이후, 북한 청소년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접근"

2. 기독교 북한 교육 연구의 도전기(2000년 - 2010년)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연구는 2000년대에 본격화 되었다. 북한 붕괴라는 긴급성은 기독교교육 영역에서도 새로운 화두가 되었다. 2001년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갑작스러운 통일 후 북한 동포들의 기독교교육을 위하여'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가 개최되어 통일을 대비한 기독교교육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2009년 고신대학교에서 열린 '자유 북한을 대비한 기독교교육 학술세미나'를 통해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통일 자체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임창호, 2011). 이 시기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한다면 평화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

다는 점이다(박종석, 2022; 조은식, 2004; 이금만, 2009; 김성은, 2010). 이는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2000년대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연구는 시대의 도전에 응전하며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 주요 연구물은 다음과 같다.

〈표 8〉 기독교통일교육 주요 연구물 (도전기: 2000년대 초반)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2000년	홍정근	"북한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통일시대의 교회를 위한 교재 개발의 방향"
2002년	정중훈	"기독교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통일시대의 교육"
	박종석	"한국 기독교 평화 교육의 반성과 방향" "평화의 영역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2004년	조은식	"기독교 평화교육으로의 통일교육"
2008년	허문영	"통일 전망과 우리의 준비"
	조명숙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안부섭	"북한의 교육 현장을 가다 -북한 청소년에게도 희망을 -"
	주선애	"교회의 탈북자 사역 개발 -새 생활 체험학교를 중심으로-"
2009년	허호익	"한국기독교의 통일논의의 역사와 통일의 실천적 과제"
	이금만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교육의 방향 모색"
2010년	김성은	"분단된 한반도를 위한 기독교 민족역사교육의 문제"

3. 기독교 북한 교육 연구의 도약기(2010년 - 2020년)

2010년 이후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연구는 급속적인 확장이 이루어진다.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부자세습을 완료한 김정은 정

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독교교육 영역에서도 북한의 교과서 연구 등을 통한 북한 교육에 대한 총론적 연구가 시작되었다(김성은, 2010; 임창복, 2012; 김도일, 2013, 함승수 2018; 정지웅, 2019; 고유경, 2020; 정희정, 2022).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통일교육 관련 연구물들이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하였고(임창복, 2012; 안교성, 2012; 양금희, 2013; 안중희, 2016; 임창호 2017; 함승수 2020), 북한 이탈주민 관련된 연구(박미하, 2011; 김규식, 2012; 한만길, 2012; 이현정, 2012; 이빌림, 2012; 최성훈, 2016; 이종민, 2022), 통일 전후로 한 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양금희, 2013; 하충엽, 2013; 서영준, 2014; 유재덕, 2015; 양금희, 2016; 최진경, 2017; 이종민, 2012) 등 북한 교육 관련하여 연구 주제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탈북민의 증가에 따라 탈북민 구술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연구의 도약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연구가 교회의 통일교육 연구와 교회의 통일담론과 관련된 연구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영역과 주제 모두 확장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 시기의 주요 연구물은 아래와 같다.

〈표 9〉 기독교통일교육 주요 연구물 (도약기: 2010년대 이후)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2011년	박미라	"다문화 기독교교육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학생교육"
	이은경	"청소년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형"
	이수원	"북한 주체사상학습체계의 종교성 연구 -기독교 종교 활동과의 비교"
	윤응진	"기독교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이어야 한다"
2012년	허문영	"북한체제 변화전망과 우리의 통일준비"
	임창복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교육의 실제"
		"북한 소학교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김일성 부자의 이상화 개념과 서술 연구"
	김규식	"통일대비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안교성	"통일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통일을 위한 과제들"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2012년	유은정, 정희정	"기독교 유아통일교육의 방향성 모색"
	한만길	"탈북청소년의 교육 실태와 과제"
	이현정	"학령기의 북한이탈학생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교육지원 방안"
	이벌립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본 통일교육"
2013년	양금희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의 통일교육"
	하충엽	"동이 공동체 이해를 통해 바라보는 통일"
	김도일	"남북한 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한 통일교육 모색을 위한 연구"
	기독교교육학회	"북한이탈학생에 대한 영재교육의 필요성 및 방안"
	김기숙	"평화지향적 통일 교육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고찰"
	임창호	"한국교회 북한선교의 현황과 한계, 기독교교육적 접근의 새로운 모색"
2014년	서영준	"분단을 넘어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교육에 관한 연구"
	유재덕	"한반도 문제와 기독교 평화교육"
	김기숙	"코메니우스 평화사상이 통일교육에 주는 교육적 함의"
	김청봉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독교평화교육"
	김기숙	"심미적 체험을 통한 통일인성교육 기초 연구"
2015년	이은주	"에큐메니칼 학습으로서의 기독교 평화통일교육 정립 연구"
	유재덕	"기독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색 :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2016년	김기숙	"여성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안중희	"성인 기독교통일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양금희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교회의 기독교 통일교육 연구"
	최성훈	"탈북청소년의 인성교육과 교사의 다문화역량"
2017년	최진경	"남북통일 준비를 위한기독교의 섬김(Diakonia)의 교육"
	성백 외	"기독교교육 분야에서 통일교육연구의 동향분석"
	임창호	"한국교회 통일교육의 시스템화 가능성 모색"
	조만준	"이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가 기독교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이현우, 한상진	"기독교 남북통일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방향성 연구"
	조만준	"칼빈의 화목(Reconciliation)의 신학이 기독교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년도	학자	주제 및 연구물
2017년	조만준	"다문화 사회의 기독교 통일교육을 위한 제언"
	김영미	"포스터의 신앙공동체 이론을 통한 다문화 기독교교육 모델 연구"
2018년	유성창	"통일과 평화를 위한 학교에 대한 고찰"
	함승수	"한국 입시 위주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과 제언"
	함승수	"평화교육을 통한 기독교 통일교육 방향 연구"
2019년	강구선, 채수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육의 방향과 과제 탐구"
	정지용	"김일성 저작집을 통해 본 북한의 기독교 인식과 대응논리 연구"
	이종민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강미량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관계적 정체성 교육"
2020년	함승수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기독교통일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김성결, 안미리	"다문화시대 기독교통일교육에 대한 보편적학습설계 적용 제고"
	이종민	"통일시대를 대비한 탈북청소년의 교육리더십 계발을 위한 내러티브 기법 연구"
	오성주	"미래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대안적 방안모색"
	임창호	"교육선교로서의 북한선교에 관한 연구"
	고유경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살펴본 한국사 교과서의 북한과 통일에 대한 서술"
2021년	이종민	"통일 한국 시대에 대비한 교육리더십 계발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함의"
2022년	정희정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기독교 유아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초 연구"

4. 소결 : 기독교 북한 교육 연구 활성화 필요

기독교 교육 영역에서 북한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연구의 방향이 '교회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공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적 통일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과 북한 사회를 복음화 하는데 필요한 북한 교육 자체에 대한 연구 역시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주제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연구와 북한 교육 연구의 동향과 그 쟁점을 바탕으로 기독교 영역에서 북한 교육 연구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과제를 다음 장에서 제언한다.

V. 기독교 북한 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본 장에서는 기독교 북한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탈 이데올로기적 연구 토대 구축’ ‘1차 연구 자료(Rew Data) 확보’, ‘연구 주제의 활성화’ ‘연구방법론 강화’ 등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선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탈이데올로기적 북한 연구의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김도일(2021)은 북한과 통일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연구가 요원한 원인으로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의 갈라진 담론’을 지적한다. 한국교회는 ‘복음담론’ 중심의 보수진영과 ‘평화담론’ 중심의 진보진영간의 합의된 통일 담론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외치는 동시에 남북한 대립과 갈등의 증폭제가 되는 한계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일담론에 대한 정치적 논쟁은 통일 연구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형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북한 연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체제 경쟁과 안보 강조 등, 북한에 대한 정서적 위협과 통일에 대한 불안심리를 재생산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탈이데올로기적 접근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함승수, 2020). 따라서 기독교교육 영역에서 북한 연구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적으로 한국교회의 기저에 깔려있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의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둘째, 북한 연구의 기초 토대를 공고히 쌓아야 한다. 이는 '북한 연구 1차 자료 확보' 및 이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북한 관련 연구자가 경험하는 공통적인 한계는 바로 자료의 부족 및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는데 있다. 북한 사회가 보이는 폐쇄성으로 인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1차 자료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활용 가능한 자료들도 언제나 신뢰도와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연구에 사용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저작집이나 담화문은 공식성과 선전성이 매우 강하다. 이외의 북한 당국의 공식문서들도 해석과 신뢰도의 문제가 늘 대두된다. 또한 기존 북한 교육 연구가 북한 교육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의 정책적 효용성을 증명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 교육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하여 시의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기도 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자료들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문헌 자료에 나오는 고도의 선전성과 은유성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데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연구의 1차 자료를 확보하고 북한 교육에 대한 기초 연구를 선행적으로 쌓아 가야 한다. 한국교회는 오랜 기간 지속해 온 대북지원 사업과 북한 선교 사역을 통해 형성된 공고한 대북 휴민트(Humint)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북한 연구의 보배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 한국교회와 연구자들은 휴민트를 통한 북한 교육 관련 연구 자료를 확보 하는 동시에 북한에서 나오는 인민교육, 교원신문, 교육과학 등 교육정기 간행물들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교원들의 저작물들인 교원수첩, 노동신문, 북한연감 등의 연구를 통해 북한 학교, 교실, 교원 및 학생의 삶 등 북한 교육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는 '기초 자료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셋째, 북한 교육에 대한 주제와 현안에 따른 다양한 연구의 쟁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제도적 통일을 넘어 사회통합과 사회발전 그리고 민족 복음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북한의 교육 자체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지난 70여년 동안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그리고 교육의 영역까지 사실상 모든 부분에서 이질화 되어 왔다. 그리고 제도적 통일 이후 동서독 사회 갈등과 통합의 문제를 내포한 독일의 통일 사례는, 제도적 통일 이후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의 갈등과 통합의 문제야말로 그 자체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경험하였다(함승수, 2019). 따라서 한국교회가 기독교교육을 통해 사회통합과 발전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와 북한 사람의 일상에 대한 미시적 연구를 진행시켜야 한다. 특히 북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북한 교육 및 북한 교육의 일상 등 북한 교육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시급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체제 유지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불평등의 기재'로서 분석하는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거시적 국가차원의 교육이 미시적 삶의 자리에 어떻게 다다르고 있는지, 또 거시적 구조와 미시적 삶의 영역의 역동적 행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불평등'이라는 렌즈를 통해 연구하여, 북한 교육의 실상은 물론이고 북한 사회의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 교육 연구 방법론의 확장이 요구된다. 북한 연구 활성화는 북한 연구에 필요한 연구 역량 강화를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북한 연구에 있어 교차분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복적으로 언급하였듯이 북한 연구 자료들은 신뢰도와 타당성의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 북한의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는 연구의 원천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공식 간행물을 연구하는 것은 필수이지만 이들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 연구의 객관성과 실증성을 담보하는 교차분석은 북한 연구의 필수라 할 수 있다. 다행히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면접 및 구술자료 활용을 통한 교차분석이 가능해졌고, 이를 토대로 북한 교육에 대한 종합적 연구가 가능해지고 있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교육 현상을 파악했다면, 인터뷰 등의 질적 연구를 통해 북한교육의 이론과 현실을 교차

확인하는 연구의 발전이 함께 요청된다.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전체주의적 연구방법론을 극복해야 한다. 북한사회를 전체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 교육에 있어 국가 스케일(national scale)의 다른 행위자들의 역할을 간과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북한이 강력한 전체주의 국가인 것은 사실이나 국가를 교육의 유일한 행위자로 과잉 인식 할 때, 북한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위자(교사, 학부모, 학생, 사교육 시장, 교육관료 등)들의 상호 매커니즘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북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기독교 교육 영역에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전체주의적 접근법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외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들의 상호 역동성이 국가 차원의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Ⅵ. 나가는 말

본 연구는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 영역의 북한 교육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연구를 위해 북한연구의 주요한 흐름과 쟁점을 살펴보고, 북한 교육 연구의 역사적 흐름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거시적 국가차원의 북한 교육 연구에서 일상의 삶을 닮아내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연구로 분화되고 있는 특징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연구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고, 발전적 연구를 위한 방안으로서 '탈이데올로기적 연구 토대 구축'과 '기초연구자료 확보', '연구 주제 및 방법론의 활성화'를 통한 '연구 역량 강화'등을 제언하였다.

그리스도인에게 교육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야 할 영역이며 회복되어야 할 사명의 장이다. 따라서 북한 연구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육의 원리를 도출하고,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교회와 기독교 교육학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무엇보다 통일이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이라는 거시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때, 기독교교육이 마주하고 있는 역사적 책무 중 하나는 이질화된 남북한의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며, 실력과 신앙을 겸비한 기독교인재를 양성하여 통일 이후 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가 사회통합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연구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교육 영역에서 북한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 등이 더욱 활성화되어 분단이라는 험난한 역사의 여정을 걸으며 평화와 통일이라는 과제와 마주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격려하고 자극하는 의미 있는 구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정인(1998). 북한연구 방법론: 재론. **현대북한연구, 창간호**, 26-27.
- [Kang, J. I. (2003). A Rejoinder to My Critics = Re-examining the Methodological Debates over North Korean Studies,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1*, 26-27.]
- 고유환(2009). 북한연구 방법론의 현황과 과제. **통일과 평화, 창간호**, 29-71.
- [Koh, Y. H. (2009). A Study of Methodology on North Korean Studie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1*, 29-71.]
- 고유환(2011). 북한연구에 있어 일상생활연구방법의 가능성과 과제. **북한학연구, 7(1)**, 5-24.
- [Koh, Y. H. (2011). A Study of Everyday Life Approach on North Korean Studies, *North Korean studies, 7(1)*, 5-24.]
- 고유환(2015). 분단 70년 북한연구 경향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24(1)**, 29-54.
- [Koh, Y. H. (201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North Korean Studies after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1945, *Unification Policy Studies, 24(1)*, 29-54.]
- 고유환(2019). 북한연구방법론의 쟁점과 과제. **통일과 평화, 11(1)**, 5-32.
- [Koh, Y. H. (2019). A Study on Trends and Issues of North Korean Studies,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11(1)*, 29-71.]
- 김도일(2013). 남북한 교과서 비교분석을 통한 통일교육 모색을 위한 연구. **장신논단, 45(1)**, 205-231.
- [Kim, D. I. (2013). A Search for Unification Education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of Ethics Curriculum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Journal of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45(1)*, 205-231.]
- 김효숙(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기독교교육논총] 연구 동향 탐색. **기독교교육논총, 58**, 147-176.

- [Kim, H. S. (2013). Exploration of Research Trends of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8, 147-176.]
- 박미정, 한주(2020).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국내 북한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185-213.
- [Park, M. J. & Han, J. (2020). Research trend analysis for North Korea Education Research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11), 185-213]
- 송두울(1995). 북한연구에서의 '내재적 방법' 재론, **역사비평**, 30, 222-229.
- [Song, D. Y. (1995). A Critical Analysis of so-called Internal Approach = A Methodological Review in North Korean Studi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30, 222-229]
- 신효숙(2006).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통일정책연구**, 15, 131-157.
- [Shin, H. S. (2006). Issue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Educational Study, *Unification Policy Studies*, 15, 131-157]
- 양금희(2016).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교회의 기독교 통일교육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46, 231-263.
- [Yang, K. H. (2016).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toward to social integr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6, 231-263.]
- 임창호(2017). 한국교회 통일교육의 시스템화 가능성 모색. **기독교교육논총**, 51, 11-40.
- [Lim, C. H. (2017). Systematizing the Korean Church's Unification Education: A Proposal,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1, 11-40]
- 임창호(2019). 3개 기독교교육 학술지 논문제목에 나타난 주제어 동향분석 연구. **기독교교육 논총**, 60, 13-43.
- [Lim, C. H. (2017). Analysis of Thematic Trends within Academic Paper Titles in 3 main Korean Christian Education Journal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0, 13-43]

윤응진(2012). 기독교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이어야 한다. **기독교교육논총**, 29, 25-56.

[Yun, E. J. (2012). Richtung und Aufgaben der Christlichen Friedenserziehung für die Vereinigung Korea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9, 25-56]

함승수 외 4명(2019). 평화교육을 통한 기독교 통일교육 방향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2, 187-216.

[Ham, S. S. (2019). A Study on the Unification Education Direction of Korean Churches through Peace Education, *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2, 187-216]

함승수(2020).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기독교 통일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66, 259-294.

[Ham, S. S. (2020). After Covid-1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ew Christian Unification Curriculum, *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6, 259-294.]

Abstract

Christian Educational Proposals for Revitalizing Research on North Korea's 'education'

Ham Seung su

Senior Researcher,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was start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al development to revitalize North Korea's 'education' research. Since the two Koreas have experienced heterogeneity in almost all elements of society,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education, during the period of division in 1977, true unification depends on laying the foundation for social integration that can overcome the sense of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Koreas. This is why North Korea's "education" research is needed. Education is the foundation for transferring culture and history, and for bringing about the survival, transformation, and community of society and since it is the mission of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 educators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North Korean "education" research, North Korean "education" research is very important. Despite this importance, 'North Korean research'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has not been properly conducted. Research on the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 that can be used in churches is actively taking place, but research on the macro level of presenting post-unification education blueprints is rare. This study was start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al development to revitalize North Korea's 'education' research. For the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Research' were analyzed according to generational classifi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recent research on North Korea has been expanding in research topics and methodologies, and recent studies have been differentiated into

microscopic studies that deviate from existing research trends at a macro level and view North Korea's daily lif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education research' are summarized by period. The research on North Korean education, which began in earnest in the 1970s, was divided into the period of start(70s), transition(80s), leap(90s), expansion(2000s), and development(2010s~), and research characteristics for each period were analyzed. Through this, early North Korean education research was also conducted in the policy aspect of the count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and social studies were strong, but recent studies have confirmed that the subjects and contents are diversifying. Based on these studies, the pending issues and issues of North Korean education research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were analyzed. The study of North Korea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which began in the 1980s, has been conducted in the engineering aspect of 'development of unification education programs for churches'. However, studies on Christian unification education and North Korean education itself, which can be used in public education sites including Christian schools, have yet to be sufficient. Nevertheless, the diversification of research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can be evaluated as a positive change. Based on these studies, it was proposed to establish a de-ideological research foundation, secure primary research data(Raw Data), activate research topics and research methodologies, and strengthen research capabilities in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o revitalize North Korean research in the field of Christian education. I hope this study will trigger various follow-up studies and help Korean churches that must achieve unification.

《 **Keywords** 》

Christian North Korea education study, Christian unification study, Christian North Korea study, North Korean education research methodology

- 투고접수일 : 2022년 9월 6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9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9월 29일